

	보도자료	2026. 5. 11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과수연구과장	고승찬	☎ 760-7400
		업무담당자	김어진	☎ 760-7415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기후적응 · 기능성 성분 함유 만감류 품종 육성 추진

- 2030년까지 3품종 육성, 분자마커 활용 육종 연한 단축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기후와 소비 트렌드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만감류 신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.
- 최근 고온 등 기후변화로 감귤 열과 피해와 품질 저하가 잇따르며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으며, 소비 시장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재배 안정성이 높고 시장 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신품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.
- 농업기술원은 2011년 교배육종 이후 시설재배에서 12월부터 1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고품질 만감류 6품종을 개발했으며, 2030년까지 3품종을 추가 육성해 생산자의 재배 품종 선택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.
 - * 연도별 품종 육성 현황 및 계획(누적): '21) 3 → '24) 6 → '27) 7 → '30) 9
 - * '26년 기준 만감류 육성 품종: 가을향, 달코미, 설향, 우리향, 맛나봉, 레드스타
- 이를 위해 매년 교배를 통해 얻은 실생개체의 품질 및 생육 특성을 조사하고, 육종 목표에 부합하는 17계통을 선발해 평가하고 있다.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우수한 3계통을 품종화할 계획이다.

- 육종 목표에 부합하는 3품종은 △기후 온난화에 따라 연내 수확이 가능한 노지 재배 만감류 △수확기 분산을 위한 2~4월 성숙형 고품질 시설 만감류 △껍질 벗김이 쉽고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만감류 계통이며, 수량성과 품질 특성 평가를 거쳐 선발·품종화할 계획이다.
- 특히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적육계 만감류 선발에는 분자마커 기술을 활용해 주요 형질을 조기에 판별함으로써 육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- * 분자마커(Molecular Marker): 게놈(genome)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서열 차이(변이)를 이용해 개체나 품종을 식별하는 기술로, 기존에는 결실 후(7년 소요)에 확인 가능했던 주요 형질을 발아 초기 잎 검사(2년 소요)를 통해 판별할 수 있음
- 농업기술원은 분자마커 활용 범위를 기능성 성분 판별뿐 아니라 단·다배 및 교잡배 판별까지 확대 적용하고, 주요 형질을 조기에 선별해 육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.
- 김어진 농업연구사는 “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유망 품종 육성에 힘쓰고 있다” 며 “조기 선발 기술을 적극 활용해 육종 기간을 단축하고, 제주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